

經氣論에 根據한 四象體質 形成에 관한 文獻的 考察

金星澈*

Abstract

A Literature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on the basis of Channel-qi theory

Kim Sung Chul*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Wonkwang University Oriental Medical Hospital, Kwangju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urse upon that the construction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has a significant property of Oriental Medicine by explaining the disparity of the viscera and bowels of four constitutions through the special quality of ying-qi and wei-qi circulating in human body on the basis of the channel-qi theory of 『Huangdi Neijing』

Conclusion :

1. Primordial-qi is the congenital essence inherited from the parents and pectoral-qi, ying-qi and wei-qi is the acquired essence derived from the food and air that human eat and breathe.
2. Ying-qi and wei-qi circulates in the meridian system by the strength and pushing of pectoral-qi under the influence of primordial-qi
3. Ying-qi, by the pushing function of pectoral-qi, determines large lung-small liver and small lung-large liver according to the innate quantity of qi and blood.
4. Wei-qi, by the pushing function of pectoral-qi, determines large spleen-small kidney and small spleen-large kidney according to the innate quantity of qi and blood.
5. The heart in the theory of the meridian system's fetus-nourishing and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s involved in the formation of viscera and bowels as governing human body and seven emotions.
6. It is considered that Taiyang person and Taiyin person have the constitution influenced by ying-qi.
7. It is considered that Shaoyang person and Shaoyin person have the constitution influenced by wei-qi.

The inquiry into several literatures on the basis of the channel-qi theory of 『Huangdi Neijing』 leads us to the idea that the construction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s another well-implied representation of the property of the meridian doctrine in the existing Oriental Medicine. And it is considered that the more continual studies of literatures and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cupuncture are necessary henceforth.

Key words :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haoyang person, Shaoyin person, Taiyang person, Taiyin person, Pectoral qi, Ying qi, Wei qi, Meridian doctrine, Channel-qi.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교신저자 : 김성철,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543-8 전화) 062-670-6442, Fax) 062-670-6767,
E-mail: kscndl@hanmail.net

I. 緒 論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기본구성요소를 氣血로 인식하여 心身의 상호작용을 파악하였다. 특히 氣는 몸과 마음의 근본구성요소이며 인체는 經氣로 구성되고, 經氣의 순환을 통해 생명을 영위하며 살아간다. 經氣는 인체내의 생명력인 正氣로서 인체의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유지하고 질병예방능력을 가지며 原氣, 宗氣, 營氣, 衛氣의 네 종류가 있다¹⁾. 經氣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經絡자체의 原氣를 말하는 것으로 經絡이 부모로부터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기능적인 원동력을 의미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후천적으로 받아들인 水穀之氣와 呼吸之氣에서 발생한 宗氣, 營氣, 衛氣를 말하며, 宗氣의 推動을 받아서 營氣와 衛氣가 經絡을 통해 人體內外를 쉬지 않고 흐르는 현상을 가리킨다²⁾.

고대 동양인들의 인체에 대한 사유체계방식도 “人身小宇宙”로서 인체가 자연의 大宇宙와 서로 상응하는 질서가 있다는 사고와 또 자연과 더불어 인체에는 반드시 氣가 존재하고 氣는 인체의 생명활동이라는 인식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의학의 기본학설은 黃帝內經을 근거로 한 經絡學說, 臟象學說, 陰陽五行說 등이 있다.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 醫源論에서 “此書亦是古人之經驗而五藏六腑經絡鍼法病證修養之辨實是醫家 格致之宗主而苗脈之所自出也”라 하여³⁾, 黃帝內經은 臟腑, 經絡, 鍼法, 病證, 修養 등의 다양한 古人들의 경험이 수록되어 있어 여러 한의학의 醫家 學說이나 醫術의 原理는 內經의 영향을 받아서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四象醫學이 그 동안 한의학적 기본학설과 전혀 다른 독특한 체계라 하여 정통이 아닌 學說로 취급되기도 하였으나 이제는 한국 한의학의 한 분야로 인정받고 있으며 세계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四象醫學이 한의학적 학문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인체의 체질이 왜 네가지 일까 하는 四象體質의 성립이유를 최근까지 儒學의 영향으로 孟子的 四端이나 中庸 등의 儒學精神에서 유래를 찾아 四象體質이 성립되었다는 說⁴⁾⁵⁾이 있는데 이는 결국 四象醫學이 정통 한의학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黃帝內經의 經絡學說은 氣가 존재한다는 인식하에서 성립한 學說로 臟象學說의 논리적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氣의 성립이론인 經氣論이 四象醫學의 臟腑大小關係 즉 臟腑之氣의 強弱關係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

이에 저자는 黃帝內經의 經氣論을 중심으로 인체의 經絡을 순행하는 營氣와 衛氣의 經氣적 특성을 가지고 四象人의 臟腑大小關係를 설명하여 四象體質의 성립이 한의학의 특징을 잘 함축 표현함을 논술하고자 古代 文獻을 통하여 알아 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II. 研究方法

1. 歷代文獻에서 經氣論에 關聯된 部分을 찾아 原氣, 宗氣, 營氣, 衛氣의 生理作用과 循行에 對하여 살펴보았다.
2. 發生學的 觀點에서 본 經絡 養胎說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3. 經氣와 四象體質과의 相關假說을 세웠다.
4. 東醫壽世保元중의 四象體質형성의 내용과 古典의 관련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III. 本 論

1. 經氣의 生理作用과 循行

(1) 經氣의 定意와 分類

經氣는 인체내의 眞氣 혹은 正氣로 인체의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유지하고 질병예방능력을 가지며 原氣, 宗氣, 營氣, 衛氣의 네 종류

가 있다^{5,6)}. 經氣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經絡자체의 原氣를 말하는 것으로 經絡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先天의 기능적인 원동력을 의미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後天的으로 받아들인 水穀之氣와 呼吸之氣에서 발생한 宗氣와 營氣, 衛氣를 말하며 原氣의 영향력 하에 營氣와 衛氣가 宗氣의 推動을 받아 經脈과 絡脈을 통해 人體內外를 쉬지 않고 흐르는 현상을 가리킨다^{2,5,7-9)}. 經氣論은 한의학에서 經絡學說의 토대가 되는 기본이론이며 經氣의 순환은 곧 인체의 생명력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素問·離合眞邪論>⁶⁾

“眞氣者, 經氣也”

<靈樞·刺節眞邪篇>⁷⁾

“眞氣者 所受於天 與穀氣并而充身者也”

<難經·六十六難>⁸⁾

“臍下腎間動氣者 人之生命, 十二經之根本也 故名曰原氣”

<類經·營衛三焦>⁹⁾

“然營氣衛氣 無非資籍於宗氣 宗氣盛則 營衛和衰則 營衛弱矣”

<靈樞·邪客篇>⁷⁾

“營氣者 泌其津液 注之于脈 化以爲血 以營四末 內注五臟六腑”

<靈樞·營衛生會篇>⁷⁾

“人受氣於穀 穀入於胃 以傳於肺 五臟六腑概以受氣 氣清者爲營 濁者爲衛 營在脈中 衛在脈外 營周不休 五十而復大會 陰陽相貫 如環無端”

<類經·營衛三焦>⁹⁾

“衛氣者 陽氣也 衛氣出於下焦”

표 1. 經氣의 分類와 特性

經 氣	經氣의 特性
原 氣	父母로부터 물려받은 先天之氣
宗 氣	營氣와 衛氣를 推動하는 後天之氣
營 氣	經脈으로 循行하는 後天之氣
衛 氣	絡脈으로 循行하는 後天之氣

(2) 原氣의 生理作用

原氣는 先天之氣로 元氣 또는 腎間動氣라고 하며⁸⁾,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일생동안 유지되는 生理的, 病理的 경향성을 가진 氣로 다시 자손에게 물려주는 특징을 지닌 氣다. 즉 인체가 성장하는 동안 몸의 발달을 주관하며 부모의 체형과 성격 등의 유전성을 나타내는 氣라고 볼 수 있다¹⁾. 또한 原氣는 經絡이 기능하고 활동하는 기초가 되고 後天之氣인 宗氣, 營氣, 衛氣는 모두 原氣를 기초로 생긴다⁹⁾.

徐靈胎의 醫學源流論에서 생명을 부여받을 때는 이미 分數가 정해진다고 하였는데, 이 分數는 原氣의 의미로서 氣血안에서 多少의 일정한 數量을 이루면서도 氣血에 앞서 主宰하는데 形體를 이룰 때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인간수명의 長短과 體質의 強弱이 原氣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았다⁹⁾.

原氣는 腎에 저장되어 있으며 腎臟의 精인 元陰과 腎臟의 氣인 元陽으로 나뉘고 元陰은 인체생명활동의 물질적 기초가 되며, 元陽은 인체생명활동의 기본인 기능을 의미한다¹⁰⁾. 原氣는 이미 생명을 부여받은 인체에서는 腎에 저장되어 있다가 부모의 父精과 母血의 결합으로 兩精이 만나면 神이 생긴다⁷⁾. 이 神은 血과 氣 및 營氣와 衛氣가 서로 和通하여야 五臟이 생기며 神氣가 心에 간직되고 魂魄이 갖추어지면서 사람이 된다고 하였다⁷⁾. 따라서 原氣는 經絡과 臟腑의 발생과정과 기능활동에

밀접한 작용을 하는데, 原氣는 先天의 氣에 속하고 宗氣는 後天의 氣에 속하며, 이들 상호간에 밀접한 연계를 인하여 後天의 氣인 營氣는 經脈을 순행하고 衛氣는 絡脈으로 순행해서 臟腑와 筋骨 등 全身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 經氣의 작용으로 經絡과 臟腑 및 筋骨氣血의 특징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인체가 성장하는 동안 몸의 발달을 주관하며 부모의 체형과 성격 등의 유전성을 나타내는 先天之氣인 原氣의 영향으로 四象體質이 성립한다는 經氣論의 假說을 세웠다.

<難經·六十六難>⁸⁾

“臍下腎間動氣者 人之生命也 十二經之根本也故名曰原氣 輒爲原穴 五臟六腑之有病者 皆取其原穴也”

<靈樞·九鍼十二原篇>⁷⁾

“五臟有疾也 應出十二原”

<靈樞·本神篇>⁷⁾

“故生之來謂之精 兩精相搏謂之神”

<靈樞·天年篇>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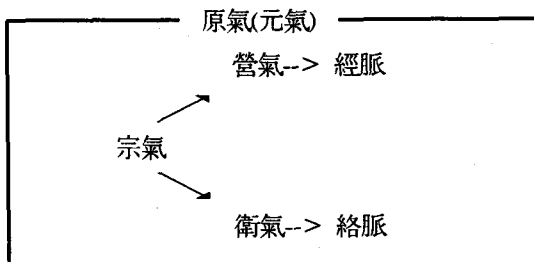
“以母爲基, 以父爲楨, 失神者死, 得神者生也”

“黃帝曰 何者爲神 岐伯曰 血氣已和, 營衛已通, 五臟已成, 神氣舍心, 魂魄畢具, 乃成爲人”

<徐靈胎醫書全集·醫學源流論>²¹⁾

“當其受生之時 已有定分焉 所謂定分者 原氣也 視之不見 求之不得 附於氣血之內 宰乎氣血之先 其成形之時 已有定數”

표 2. 原氣와 後天之氣의 相關性



(3) 宗氣의 生理作用

宗氣는 後天之氣로써 肺가 吸入한 淸氣와 水穀精氣가 合하여 形成되며 胸中에서 기능화하여 營氣와 衛氣의 순환을 推動하는 動力이 된다¹⁰⁾. 宗氣는 胸中の 左乳下部인 심장 처에 위치하며 외적인 출현은 虛里穴에서 나타나고 기능은 肺의 호흡활동을 推動시켜 호흡과 음성의 強弱을 調整하며 心氣의 推動을 도와 혈액을 運轉시켜서 四肢의 寒溫과 활동을 유지하게 한다¹⁰⁾.

原氣의 영향력 하에 宗氣의 推动作用으로 因해 對待關係를 가지는 臟器의 상태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宗氣가 營氣를 推動하여 手太陰肺經에서 足厥陰肝經으로 순환하는 肺와 肝의 對待關係를 가지며, 다른 하나는 宗氣가 衛氣를 推動하여 生기는 腎의 膜原之內에서 脾의 膜原之內로 순환하는 腎과 脾의 對待關係를 가진다.

宗氣의 推动作用에 의해서 營氣와 衛氣가 經絡을 따라 全身을 순환하는데⁹⁾, 原氣의 영향력아래서 先天적으로 稟賦받은 肺肝經과 腎脾經의 氣의 量과 偏差^{6,7,20-21)}에 따라서 臟腑의 對待關係를 形成하면서 宗氣의 強弱推动作用의 도움으로 經絡을 순환하는 假說을 세울 수 있다.

이러한 經氣의 작용들을 四象體質과 결부시켜보면 太陽人의 경우에 原氣의 영향력 하에 宗氣가 營氣를 強하게 推动作用을 일으키면 先天적으로 받은 氣의 量에 따라서 肺經은 多氣한 상태로 순행되고 그 對待關係가 되는 肝經은 少氣한 상태로 氣의 偏差에 따라 순행되어 肺大肝小한 체질을 形成하며, 太陰人의 경우에는 原氣의 영향력 하에 宗氣가 營氣를 弱하게 推动作用을 일으키면 先天적으로 받은 氣의 量에 따라서 肺經은 少氣한 상태로 순행되고 그 對待關係가 되는 肝經은 多氣한 상태로 순행되어 肝大肺小한 체질을 形成한다. 少

陰人の 경우에 原氣의 영향력 하에 宗氣가 衛氣를 強하게 推动作用을 일으키면 선천적으로 받은 氣의 量에 따라서 腎의 膜原은 多氣한 상태가 되고 그 對待關係가 되는 脾의 膜原은 少氣한 상태로 순행되어 腎大脾小한 체질을 형성하며, 少陽人의 경우에는 原氣의 영향력 하에 宗氣가 衛氣를 弱하게 推动作用을 일으키면 선천적으로 받은 氣의 量에 따라서 腎의 膜原은 少氣한 상태가 되고 그 對待關係가 되는 脾의 膜原은 多氣한 상태로 순행되어 脾大腎小한 체질을 형성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실제 內經에서는 素問과 靈樞에서 선천적으로 품부받은 인체 經脈의 氣血多少를 살펴보면 肺經과 肝經, 腎經과 脾經의 경우에서만 多氣와 少氣의 두가지 상태가 각각 문헌에 나타난다. 그리고 각 經脈마다 氣의 多少편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多氣한 곳에서 少氣한 곳으로 氣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된다.

<類經·營衛三焦>⁹⁾

“然營氣衛氣 無非資藉於宗氣 宗氣盛則 營衛和 衰則 營衛弱矣”

<素問·平人氣象論>⁶⁾

“胃之大絡 名曰虛里 貫膈絡肺 出於左乳下 其動應衣 脈宗氣也”

<靈樞·邪客篇>⁷⁾

“五穀入於胃也 其糟粕津液宗氣 分爲三隧 故宗氣積於胸中 出於喉嚨 以貫心脈而行呼吸焉”

<素問·血氣形志篇>^{6,20)}

“夫人之常數 太陽常多血少氣 少陽常少血多氣 陽明常多氣多血 少陰常少血多氣 厥陰常多血少氣 太陰常多氣少血 此天之常數”

<靈樞·五音五味>^{7,21)}

“夫人之常數 太陽常多血少氣 少陽常少血多氣 陽明常多氣多血 厥陰常多氣少血 少陰常多血少氣 太陰常多血少氣 此天之常數”

표 3. 營,衛氣와 宗氣의 關聯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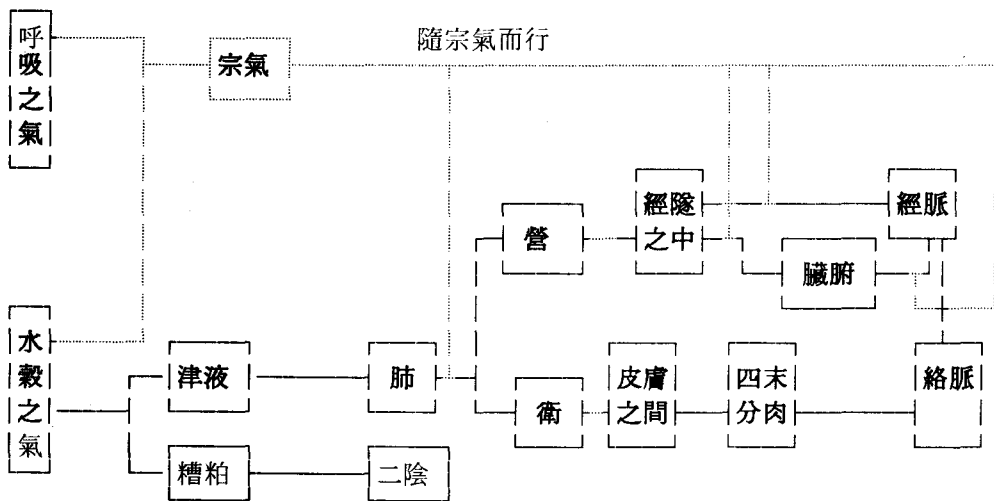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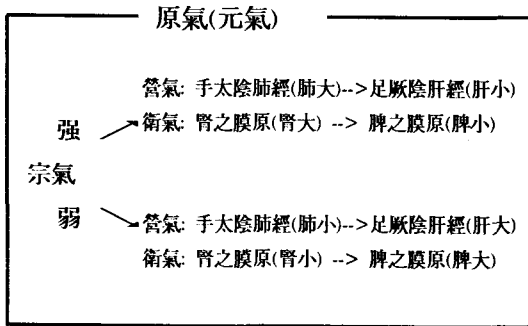


표 4. 宗氣推動과 臟器對待關係假說



(4) 營氣의 生理作用과 順行

가) 營氣의 生理

營氣의 주요 생리기능은 血液을 생산하고 全身을 영양하며 臟腑와 經脈의 內부를 순환한다⁷⁾.

① 津液이 脈中에서 血液을 化生한다.

營氣가 肺經의 脈中으로 들어와 혈액을 구성한다⁷⁾.

<靈樞·邪客篇>⁷⁾

“營氣者 泌其津液 注之於脈 化以爲血”

<靈樞·營衛生會>⁷⁾

“上注於肺脈 乃化而爲血 ”

② 全身에 營養을 공급한다.

營氣가 全身을 순행하는 동안 臟腑와 經絡 등에 영양물질을 공급하여 전신의 上下內外를 營運한다⁷⁾.

<靈樞·邪客篇>⁷⁾

“營氣者 泌其津液 注之于脈 化以爲血 以營四末 內注五臟六腑”

나) 營氣의 循環

營氣는 脈中을 流注하며 營氣는 쉬지 않고 周行하는데 五十에서 다시 大會하며 생명이 있는 한 끝이 없이 순환하며, 宗氣의 推動을 받아 一呼에 三寸, 一吸에 三寸씩 인체의 呼吸에 따라 手太陰肺經에서부터 시작하여 足厥陰肝經의 經脈을 순환한다⁷⁾. 이러한 營氣의 순환에서 肺와 肝의 臟腑對待關係가 형성된다.

<靈樞·營衛生會篇>⁷⁾

“人受氣於穀 穀入於胃 以傳於肺 五臟六腑澗以受氣 氣清者爲營 濁者爲衛 營在脈中 衛在脈外 營周不休 五十而復大會 陰陽相貫 如環無端”

<靈樞·五十營篇>⁷⁾

“故人一呼脈再動, 氣行三寸, 一吸脈亦再動, 氣行三寸, 呼吸定息, 氣行六寸. 十息氣行六尺, 日行二分. 二百七十息, 氣行十六丈二尺, 氣行交通於中, 一周於身. 水下二刻, 日行二十五分. 五百四十息, 氣行再周於身. 水下四刻, 日行四十分. 二千七百息, 氣行十周於身. 水下二十刻, 日行五宿二十分. 一萬三千五百息, 氣行五十營於身”

표 5.營氣의 循環에 대한 模式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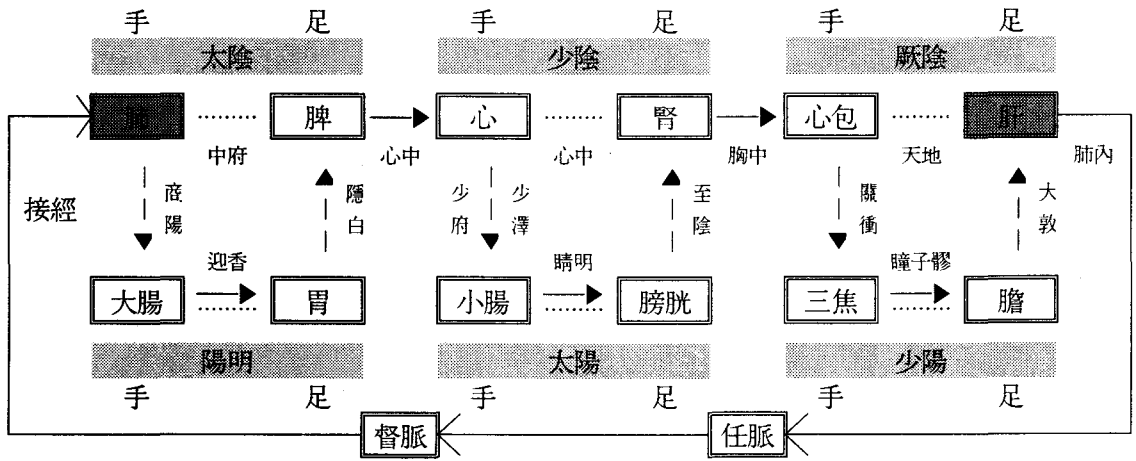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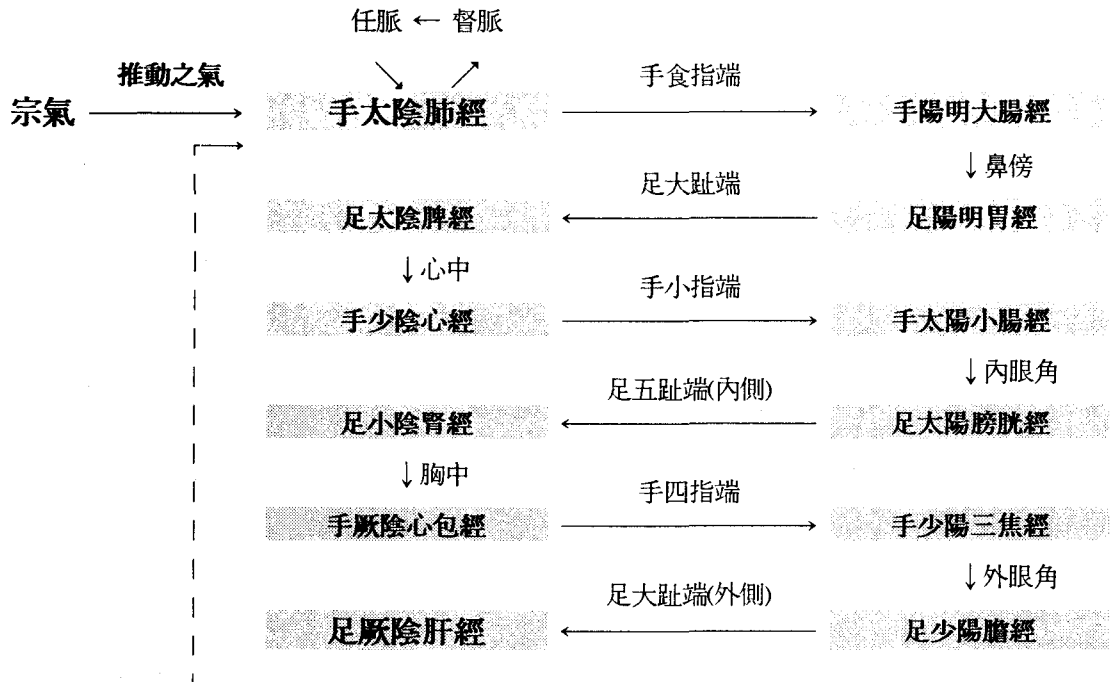


표 6.宗氣와 營氣의 循環에 대한 模式圖



다) 營氣가 循環하는 經脈의 種類

1) 十二經脈 : 營氣가 순행하는 正經을 稱한다⁹⁾.

2) 十二經別 : 十二經脈에서 分출된 縱行하는 支脈을 稱한다⁹⁾.

ㄱ) 陽經의 經別 : 體腔內部에서 體表의 頭頸部 등으로 淺出하여 본래의 十二經脈中的 同名의 經脈으로 分流한다.

ㄴ) 陰經의 經別 : 同名의 經脈으로는 다시 歸入하지 않고 그와 表裏가 되는 陽經의 經別과 合流한다.

3) 奇經八脈 : 任脈·督脈·衝脈·帶脈·陽蹻脈·陰蹻脈·陽維脈·陰維脈으로 十二經脈에서 分출된 큰 支脈으로 奇經八脈은 대부분의 經脈이 縱行하며 左右 대칭적이지만 橫行하는 것과 軀幹의 正中線에 分포된 것도 있다⁹⁾.

(5) 衛氣의 生理作用과 順行

가) 衛氣의 生理

衛氣의 주요 생리기능은 外邪의 侵入을 방어하고 臟腑, 肌肉, 皮毛 등을 溫養하며 汗液의 排泄을 조절하고 통제한다^{7,8,11-12)}.

① 肌表를 保衛하며 外邪의 侵入을 방어한다.

衛는 保衛의 뜻으로 피부에 가득 찬 衛氣는 외부에서 오는 邪氣에 저항하는 방어선과 같아서 邪氣가 인체에 침입하지 못하게 한다⁸⁾.

<難經·三十難>⁸⁾

“胃化穀爲氣 以傳與肺 肺乃主氣 氣乃爲衛 衛者護也 此是人之標悍之氣 行於經脈之外 晝行於身 夜行於臟 衛護人身 故曰衛氣”

② 臟腑, 肌肉, 皮毛 등을 溫養한다.

衛氣는 全身을 溫煦하게 하며 안으로는 臟腑를, 밖으로는 筋肉과 皮毛를 溫煦하게 한다⁷⁾. 衛氣가 和順하면 인체 內外의 온도가 적당해져서 臟腑, 形體, 九竅가 정상적으로 생리활동을 한다. 만약 衛氣가 不足하면 溫煦하는 力量이 貧弱해지므로 寒象이 출현한다¹¹⁾. 동시

에 衛氣는 水穀精微로서 全身을 充養하는 작용을 한다.

<靈樞·本藏篇>⁷⁾

“衛氣和 則分肉解利 皮膚調柔 腠理緻密矣”

<讀醫隨筆·氣血精神論>¹¹⁾

“衛氣者 熱氣也. 凡肌肉之所以能溫 水穀之所以能化者 衛氣之功用也. 虛則病寒, 實則病熱”

③ 肌腠의 開合과 汗液의 排泄을 조절하고 통제한다.

衛氣의 활동은 肌腠를 열고 닫음으로써 汗液의 排泄을 통한 인체의 水液代謝와 體溫을 조절하게 되어 인체내의 환경과 외부 환경과의 평형을 유지하는 것이다¹²⁾.

<景岳全書·汗證>¹²⁾

“汗發于陰而出于陽, 此其根本則由陰中之營氣, 而其開閉則由陽中之衛氣”

나) 衛氣의 循環

衛氣의 순행은 營氣와 같이 하루에 五十回인데 낮에는 陽經上을 밤에는 五臟의 膜原之內를 순행한다^{5,7)}. 낮에는 足太陽膀胱經上에서 시작하여 手太陽經上, 足少陽經上, 手少陽經上, 足陽明經上, 手陽明經上을 순행하여 다시 足太陽經上으로 이어져 陽分에 二十五回를 순행하며, 밤에는 腎의 膜原에서 시작하여 五臟을 調하며 그 行이 相克의 차례가 되는 腎, 心, 肺, 肝, 脾의 膜原을 相傳하여 一調가 되고 다시 腎의 陰分에 注하는데, 陰이 다하고 陽이 出하면 다시 目에서 合하여 晝行을 陽二十五調次하며, 夜行을 陰二十五調次하여 晝夜에 모두 五十調를 行한다⁷⁾.

衛氣는 原氣의 일부분으로 腎中の 先天之精氣에 근원하는데, 腎은 下焦에 居하므로 衛出下焦라 한다⁹⁾. 衛氣의 化生關係는 부모로부터 받은 命門相火에서 근원하는 것으로 腎中の 陽氣로부터 化生하며, 脾胃에서 化生된 水穀精微에서 不斷히 滋養되며 上焦 宗氣의 宣散作用에 의해 散布된다^{5,7)}.

衛氣순환의 원동력은 原氣의 영향력아래서 宗氣에서 받고 循行은 自力으로 이루어지는데 目開하면 脾氣가 커져 衛氣가 膀胱經의 肌表나 皮膚分肉之間으로 나오며, 目閉하면 手足三陽經의 肌表·皮膚分肉之間을 行하던 衛氣가 腎으로 들어오므로 腎氣가 커지고 상대적으로 脾氣는 작아지는 것이다. 衛氣가 手足三陽經의 肌表나 皮膚分肉之間을 行할때는 臟腑之氣의 偏差가 존재하지 않지만 五臟의 陰分으로 行할 때는 臟腑之氣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脾氣가 大하면 目開하려는 작용이 強해지고, 腎氣가 大하면 目閉하려는 작용이

強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衛氣의 순환에서 腎과 脾의 臟腑對待關係가 형성된다.

<靈樞·衛氣行篇>⁷⁾

“衛氣之行 一日一夜五十周於身 晝日行於陽二十五周 夜行於陰二十五周 周於五臟 是故平旦陰盡 陽氣出於目 目張則氣上行於頭 循項下足太陽 循背下至小指之端 其散者 別於目銳眥 下至手太陽 下至小指之端外側 其散者 別於目銳眥 下足少陽 注小指次指之間 以上循手少陽之分 下至小指次指之間 別者以上至耳前 合於頷脈 注足陽明以下行 至跗上 入五指之間 其散者 從耳下下手陽明 入大指之間 入掌中 其至於足也 入足心 出內踝 下行陰分 復合於目 故爲一周。” “陽盡於陰 陰受氣矣 其始入於陰 常從足少陰注於腎 腎注於心 心注於肺 肺注於肝 肝注於脾 脾復注於腎爲周”

표 7. 衛氣의 循環에 대한 模式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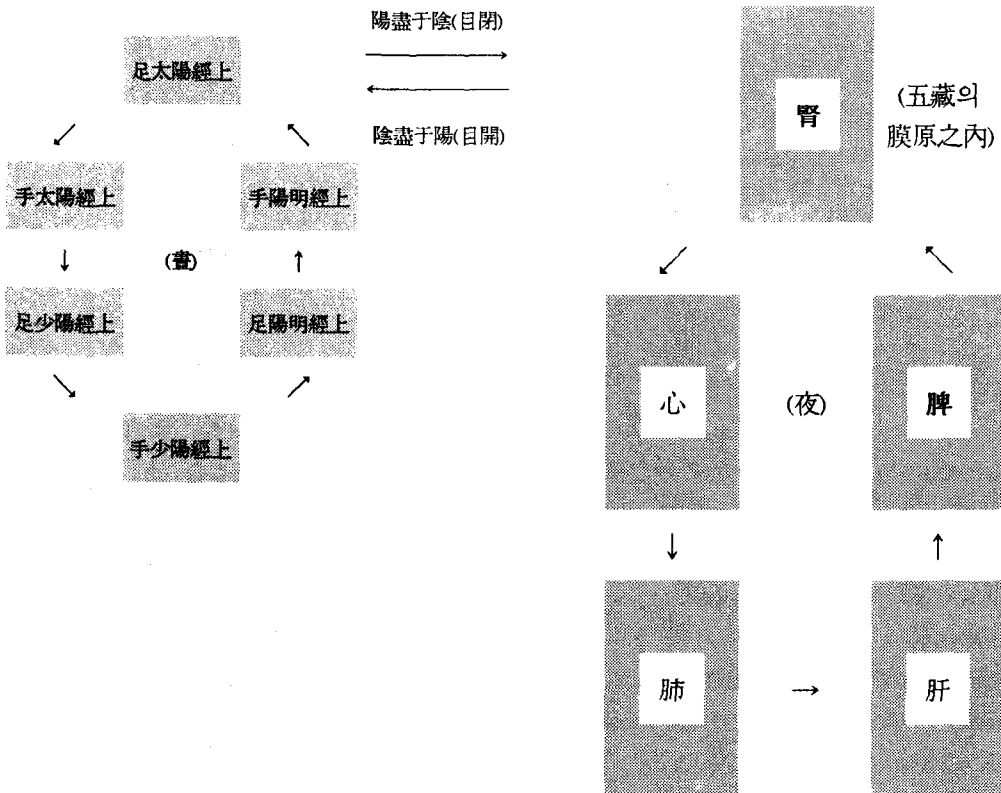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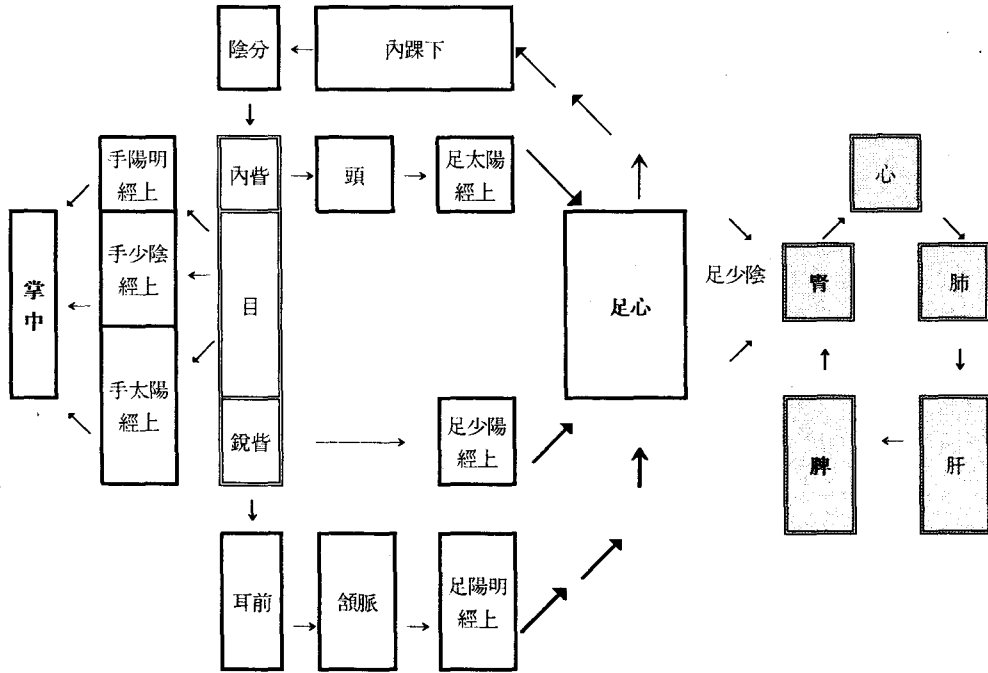


표 8. 衛氣의 體表循環에 대한 模式圖



다) 衛氣가 循環하는 經脈의 種類

- 1) 十五絡脈 : 十二絡脈과 任脈과 督脈 및 脾之大絡이 絡脈의 主體가 되므로 통상 十五大絡이라 稱한다³⁾.
- 2) 絡脈 : 十五絡脈에서 分출된 橫斜로 散布된 脈을 稱한다³⁾.
- 3) 孫絡 : 絡脈에서 分출된 細小한 支脈을 稱한다³⁾.
- 4) 浮絡 : 絡脈가운데 體表에 浮現된 支脈을 稱한다³⁾.
- 5) 血絡 : 浮絡가운데 皮膚에 노출된 細少한 血管을 血絡이라 한다³⁾.

2) 經絡養胎說

經絡의 發生학적 觀點에서 기술한 經絡養胎說은 先天之氣에 따라서 發生하는 經絡과 이에 다른 臟腑의 變化를 보이는 것으로 체질의 形成과 관련이 깊다. 임신중 臟腑의 形成은

발생학적으로 先天之氣인 原氣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체질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學說일 것으로 사료된다.

經絡養胎說은 徐之才가 <逐月養胎法>을 최초로 언급한 이래로 經絡과 臟腑의 發生을 巢元方의 <諸病源候論>과 孫思邈의 <備急千金要方>과 葉天士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經絡養胎說은 태아가 성장하면서 經絡이 형성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12經脈의 形成과정에서 心은 君主의 官으로 邪氣를 받지 않으며 모든 養胎에 參與하기 때문에 10개월 동안의 妊娠月數에 따른 逐月養胎에는 心經이 배정되지 않았다¹⁵⁾. 또한 黃帝內經에서는 心經의 五輸穴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心은 五臟六腑의 大主이기 때문에 一身을 主宰하고 邪氣를 받지 않아서 五輸穴이 없다고 설명했으며⁷⁾, 許浚의 東醫寶鑑에서도 心이 神을 간직하고 一身의 君主가 되어서 七情을 統攝하고 萬機를

酬酢한다고 하였고¹⁹⁾,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에서도 心은 一身의 主宰로서 心의 喜怒哀樂의 감정이 肺脾肝腎의 大小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관점은 모두 心을 臟腑의 중심이자 ‘心主神明’의 기능으로 인식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인들은 여러 가지 관점과 분야에서 心을 臟腑 및 經絡형성과정에서 형성되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하는 위치에 있다고 인식했으며 이는 李濟馬의 心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心은 五臟六腑의 大主로서 精神이 머무르는 곳으로 父精과 母血의 兩精이 相搏하면 神이 생기며 神은 心에 간직되어 七情을 統攝하는데 喜怒哀樂의 감정의 氣運이 心을 動하면 五臟六腑가 다 搖動하여 臟腑의 大小를 형성하는데 이 과정에 氣血을 調和롭게 하는 營氣와 衛氣가 순환을 하게 되면서 經絡과 臟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四象體質이 형성된다는 經氣의 相關假說을 세웠다.

<備急千金要方>¹⁵⁾

“妊娠 一月 名胚胎 肝脈養之 無食腥辛 不爲力事”

“妊娠 二月 名始膏 膽脈養之 無食辛燥”

“妊娠 三月 名始胎 心包脈養之 無悲哀思慮驚動”

“妊娠 四月 始受水氣 三焦脈養之 和心志 節飲食”

“妊娠 五月 始受火氣 脾脈養之 無食乾 無勞倦”

“妊娠 六月 始受金氣 胃脈養之 無甘味 無大飽 身欲微勞”

“妊娠 七月 始受木氣 肺脈養之 飲食避寒”

“妊娠 八月 始受土氣 大腸脈養之 無食燥物”

“妊娠 九月 始受石氣 腎脈養之 無處濕冷”

“妊娠 十月 臟腑皆具 膀胱脈養之 得時而生”

<東醫壽世保元·臟腑論>⁴⁾

“心爲一身之主宰...”

<東醫壽世保元·四端論>⁴⁾

“五臟之心中中央之太極也 五藏之肺脾肝腎은 四維之四象也”

“哀氣直升 怒氣橫升 喜氣放降 樂氣陷降”

“太陽人 哀性遠散而怒情促急 哀性遠散 則氣注肺而肺益盛 怒情促急 則氣激肝而肝益削 太陽之臟局 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

少陽人 怒性宏抱而哀情促急 怒性宏抱 則氣注脾而脾益盛 哀情促急 則氣激腎而腎益削 少陽之臟局 所以成形於脾大腎小也

太陰人 喜性廣張而樂情促急 喜性廣張 則氣注肝而肝益盛 樂情促急 則氣激肺而肺益削 太陰之臟局 所以成形於肝大肺小也

少陰人 樂性深確而喜情促急 樂性深確 則氣注腎而腎益盛 喜情促急 則氣激脾而脾益削 少陰之臟局 所以成形於腎大脾小也”

<靈樞·邪客篇>⁷⁾

黃帝曰 手少陰之脈獨無臉者 何也. 岐伯曰 少陰, 心脈也. 心者, 五臟六脈之大主也, 精神之所舍也. 其臟堅固, 邪弗能容也. 容之則心傷, 心傷則神去, 神去則死矣. 故諸邪之在於心者, 皆在於心之包絡. 包絡者, 心主之脈也, 故獨無臉焉.

<靈樞·口問篇>⁷⁾

“心者五藏六腑之主也 ...悲哀愁憂則心動 心動則五藏六腑皆搖 搖則宗脈感...”

<東醫寶鑑>¹⁷⁾

“心藏神 爲一身君主 統攝七情 酬酢萬機 七情者 喜怒哀思悲驚恐也 又魂神意魄志 以爲神主 故亦皆名神也<內經註>”

<靈樞·天年篇>⁷⁾

“以母爲基, 以父爲楨, 失神者死, 得神者生也”

“黃帝曰 何者爲神 岐伯曰 血氣已和, 營衛已通, 五臟已成, 神氣舍心, 魂魄畢具, 乃成爲人”

<靈樞·本神篇>⁷⁾

“故生之來謂之精 兩精相搏謂之神”

표 9. 妊娠10個月의 經絡養胎說

月 別	妊娠中 形成되는 經脈
1-2月	肝經과 膽經
3-4月	心包經과 三焦經
5-6月	脾經과 胃經
7-8月	肺經과 大腸經
9-10月	腎經과 膀胱經

표 10. 文獻에 나타난 心에 대한 認識

文 獻	心에 대한 認識
黃帝內經	五臟六腑之大主也, 精神之所舍也
東醫寶鑑	心藏神 爲一身君主
備急千金 要方	五臟專精之本, 帝王精神之所舍, 帝王監領
東醫壽世 保元	心爲一身之主宰 五臟之心中央之太極

3) 經氣와 四象體質의 상관성

經氣는 인체의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유지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능력을 가지며 原氣, 宗氣, 營氣, 衛氣의 네 종류가 있다^{5,6}. 原氣는 經絡이 기능하고 활동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⁹, 經絡과 臟腑의 발생과정에 밀접한 작용을 한다. 宗氣는 經絡이 氣血을 운행하는 추진에너지이며, 營氣와 衛氣는 宗氣에 따라 전신을 순행한다⁹. 原氣는 先天의 氣에 속하고 宗氣는 後天의 氣에 속하는데 이들 상호간에는 밀접한 연계가 있어서 營氣와 衛氣를 經絡으로 움직인다⁹. 原氣는 先天의 氣으로 부모로부터 받아서 타고난 氣로써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호흡과 음식의 섭취로 인해 만들어진 宗氣의 強弱에 의해 臟腑와 筋骨氣血의 특질을 결정할 수 있다. 宗氣는 胸中之氣로 營氣와 衛氣를 推動하는 氣인데 營氣는 呼吸에 따라 움직이는 氣고, 衛氣는 水穀之氣로서 호흡과

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水穀의 힘을 받아 스스로 움직이는 氣다⁹.

營氣는 宗氣에 따라 呼吸에 의해서 1呼에 3寸, 1吸에 3寸으로 1息에 6寸을 行하는데 인체의 呼吸에 따라서 手太陰肺經에서 시작하여 足厥陰肝經으로 가며 이를 계속 순환하는 것이다^{3,7}. 즉 肺經에서 시작하여 肝經까지 계속해서 순환하여 肺와 肝의 臟腑對待關係를 형성한다.

衛氣도 宗氣의 영향을 받아서 순환하는데 水의 陽氣속성을 가진 濁氣로써 慄疾滑利하여 經脈내로 들어가지 않고 스스로 各經의 肌表나 皮膚分肉之間 혹은 五臟의 膜原으로 순행하는데 衛氣가 手足三陽經上으로 순행할 때는 臟腑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五臟의 膜原之內로 순환할 때만이 臟腑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腎과 脾의 臟腑對待關係를 가진다.

心은 五臟六腑의 大主로서 精神이 머무르는 곳으로 心의 감정적 변화 즉 喜怒哀樂이 생기면 心이 動하고 心動하면 五藏六腑가 다 動搖하여 宗脈이 感하면 先天之氣인 原氣의 영향력아래서 선천적으로 받은 氣의 量에 따라 宗氣가 營氣를 強하게 推動하면 肺氣가 強하고 肝氣가 弱한 肺大肝小한 太陽人체질과 宗氣가 營氣를 弱하게 推動하면 肺氣가 弱하고 肝氣가 強한 肝大肺小한 太陰人체질이 형성되며, 宗氣가 衛氣를 強하게 推動하면 腎氣가 強하고 脾氣가 弱한 腎大脾小한 少陰人체질과 宗氣가 衛氣를 弱하게 推動하여 腎氣가 弱하고 脾氣가 強한 脾大腎小한 少陽人체질이 형성된다는 經氣論의 相關假說을 세울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經氣는 宗氣 推动作用의 強弱에 의해서 營氣와 衛氣가 經絡을 순환하는데 原氣의 영향력아래서 선천적으로 稟賦받은 肺肝經과 腎脾經의 氣의 量과 偏差^{6-7,20-21}에 의해서 臟腑의 對待關係를 형성하면서 經絡을 순환한다고 假說을 세웠다.

결론적으로 四象人의 경우에 原氣의 영향력에 宗氣가 營氣와 衛氣에 強한 推动作用을

일으키면 해당 經絡과 臟腑는 多氣한 상태가 되고 그 對待關係가 되는 해당 經絡과 臟腑는 少氣한 상태가 되며, 宗氣가 營氣와 衛氣에 弱한 推动作用을 일으키면 해당 經絡과 臟腑는 少氣한 상태가 되고 그 對待關係가 되는 해당 經絡과 臟腑는 多氣한 상태가 되어 經氣가 순행되는데 전체적인 氣의 總量을 유지하면서 氣의 偏差를 가지고 순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11. 經氣와 四象體質相關假說

經氣	營氣와 衛氣의 臟腑循環
營氣	太陽人 : 宗氣強->肺大(多氣)-->肝小(少氣) 太陰人 : 宗氣弱->肺小(少氣)-->肝大(多氣)
衛氣	少陰人 : 宗氣強->腎大(多氣)-->脾小(少氣) 少陽人 : 宗氣弱->腎小(少氣)-->脾大(多氣)

4) 東醫壽世保元의 四象體質形成에 관한 古典 비교연구

四象人의 성립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 東醫壽世保元과 黃帝內經, 東醫寶鑑 등의 古典내용을 비교해서 四象人 臟器가 가진 氣의 大小關係를 설명하고자 한다.

(1) 李濟馬선생은 예전 사람들의 저술한 醫書를 통하여 四象人의 臟腑性理를 발견하였다.

李濟馬선생은 醫源論에서 선인들의 저술한 醫書를 통하여 우연히 四象人의 臟腑性理를 얻었다고 설명하고 黃帝內經의 책은 난해하나 선조들이 經驗한 것으로서 臟腑, 經絡, 鍼法, 病證, 修養 등에 관하여 많은 가르침이 있으니 의사가 본받을 중요한 책으로 의술의 착안이 內經에서 나온다고 했으며, 黃帝內經의 學說은 다 믿을 것은 못되나 啓發의 功이 크다고 했다⁴⁾. 특히 辨證論에서는 內經의 靈樞에서 四象人의 外형이 다소 나타나 있다고 설명한 것이나 內經이후 쓰여진 傷寒論은 內經의 熱病을 발전시켜 전문화했으며, 東醫寶鑑 등의 저술에도 內經의 내용을 인용하고 절대적

논거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기본이론이나 학설이 內經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볼 때¹⁶⁾, 黃帝內經은 李濟馬선생이 후일 四象人의 體質醫學을 상세히 연구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었다고 사료되며, 특히 李濟馬선생은 張仲景의 <傷寒論>과 傷寒原理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臨床에 응용하도록 쓴 朱肱의 <活人書>와 100여종의 醫書를 참고해서 만든 許浚의 東醫寶鑑을 醫家로서 최고의 공로와 업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⁴⁾.

<東醫壽世保元·醫源論>⁴⁾

“... 因前人之述 偶得四象人臟腑性理 ...”

“... 此書 亦是古人之經驗而五藏六腑經絡鍼法病證修養之辨 多有所啓發則實是醫家格致之宗主而苗脈之所自出也...”

“... 若以醫家勤勞功業 論之則 當以 張仲景 朱肱 許浚 爲首 ...”

<東醫壽世保元·辨證論>⁴⁾

“靈樞書中 有太少陰陽五行人論而略得外形未得臟理 蓋太少陰陽人 早有古昔之見而 未盡精究也” <靈樞·通天篇>⁷⁾

“蓋有太陰之人, 少陰之人, 太陽之人, 少陽之人, 陰陽和平之人. 凡五人者 其態不同 其筋骨氣血各不等”

“太陰之人, 多陰而無陽, 其陰血濁. 其衛氣濇 陰陽不和 緩筋而厚皮 不之疾瀉, 不能移之”

“少陰之人, 多陰少陽 小胃而大腸, 六腑不調 其陽明脈小 太陽脈大 必審調之 其血易脫 其氣易敗也”

“太陽之人, 多陽而少陰, 必謹調之, 無脫其陰而瀉其陽. 重脫者易狂 陰陽皆脫者, 暴死不知人也”

“少陽之人, 多陽少陰, 經小而絡大, 血在中而氣外, 實陰而虛陽, 獨瀉其絡脈則強. 氣脫而疾, 中氣不足, 病不起也.”

“太陰之人 其狀黧黧然黑色, 念然下意, 臨臨然長大 臆然未僂”

“少陰之人 其狀清然竊然 固以陰賊 立而蹀嶮行而似伏”

“太陽之人 其狀軒軒儲儲，反身折臑”
“少陽之人 其狀立則好仰 行則好搖 其兩臂兩肘 則常出於背”

<素問·熱論篇>⁷⁾

“傷寒一日，巨陽受之，故頭項痛腰脊強。二日，陽明受之，陽明主肉，其脈俠鼻絡於目，故身熱目疼，而鼻乾不得臥也。三日，少陽受之，少陽主膽，其脈循脅絡於耳，故脅胸痛而耳聾。三陽經絡皆受其病，而未入於臟者，故可汗而已。四日，太陰受之，太陰脈布胃中，絡於噎，故腹滿而噎乾。五日，少陰受之，少陰脈貫腎絡於肺，繫舌本，故口燥舌乾而渴。六日，厥陰受之，厥陰脈循陰器而絡於肝，故煩滿而囊縮。三陰三陽五臟六腑皆受病，榮衛不行，五臟不通則死矣。其不兩感於寒者：七日巨陽病衰，頭痛少愈；八日陽明病衰，身熱少愈；九日少陽病衰，耳聾微聞；十日太陰病衰，腹減如故，則思飲食；十一日少陰病衰，渴止不滿，舌乾已而嚙；十二日厥陰病衰，囊縱少腹微下，大氣皆去，病日已矣。”

(2) 心은 五臟六腑의 大主로서 一身을 主宰하며 肺脾肝腎의 形成에 參與한다.

心은 君主의 官으로 太極에 해당하고 心은 肺脾肝腎의 形成과 調節에 參與한다⁴⁾. 특히 정서적 감정의 변화가 心動하게 하고 心動할 때에 臟腑가 動搖하여 宗脈에 影響을 미친다는 內經의 내용은 心의 喜怒哀樂의 기운이 肺脾肝腎의 大小를 형성한다는 李濟馬선생의 四象體質형성과정과 觀點이 유사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經絡養胎說에도 태아가 성장하면서 經絡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心은 君主의 官으로 모든 養胎에 參與하기 때문에 妊娠月數에서 心經은 배정하지 않았다¹⁵⁾. 또한 內經에서 心經의 五輸穴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心은 五臟六腑의 大主이기 때문에 一身을 主宰하고 邪氣를 받지 않아서 五輸穴이 없다고 설명했으며⁷⁾, 許浚선생의 東醫寶鑑에서도 心이 神을 간직하고 一身의 君主가 되어서 七情을 統攝하고 萬機를 조절한다고 하였다¹⁷⁾. 따라서 선인들은 여러 가지 觀點과 분야에서 心을 臟腑

및 經絡형성과정에서 형성되는 괴조물이 아니라 창조하는 위치에 있다고 인식했으며, 이는 李濟馬선생의 心은 一身의 主宰로서 心의 喜怒哀樂의 감정이 肺脾肝腎의 大小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생각과 동일한 觀點이라고 할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四端論>⁴⁾

“五臟之心中中央之太極也 五藏之肺脾肝腎은 四維之四象也”

“哀氣直升 怒氣橫升 喜氣放降 樂氣陷降”

“太陽人 哀性遠散而怒情促急 哀性遠散 則氣注肺而肺益盛 怒情促急 則氣激肝而肝益削 太陽之臟局 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

少陽人 怒性宏抱而哀情促急 怒性宏抱 則氣注脾而脾益盛 哀情促急 則氣激腎而腎益削 少陽之臟局 所以成形於脾大腎小也

太陰人 喜性廣張而樂情促急 喜性廣張 則氣注肝而肝益盛 樂情促急 則氣激肺而肺益削 太陰之臟局 所以成形於肝大肺小也

少陰人 樂性深確而喜情促急 樂性深確 則氣注腎而腎益盛 喜情促急 則氣激脾而脾益削 少陰之臟局 所以成形於腎大脾小也

<東醫壽世保元·臟腑論>⁴⁾

“心爲一身之主宰...”

<靈樞·邪客篇>⁷⁾

黃帝曰 手少陰之脈獨無腧者 何也. 岐伯曰 少陰, 心脈也. 心者, 五臟六脈之大主也, 精神之所舍也. 其臟堅固, 邪弗能容也. 容之則心傷, 心傷則神去, 神去則死矣. 故諸邪之在於心者, 皆在於心之包絡. 包絡者, 心主之脈也, 故獨無腧焉.

<靈樞·口問篇>⁷⁾

“心者五藏六腑之主也 ...悲哀愁憂則心動 心動則五藏六腑皆搖 搖則宗脈感...”

<東醫寶鑑>¹⁷⁾

“心藏神 爲一身君主 統攝七情 酬酢萬機 七情者 喜怒哀憂思悲驚恐也 又魂神意魄志 以爲神主 故亦皆名神也<內經註>”

(3) 李濟馬선생은 經絡學說을 후학들이 더욱 연구할 분야로 인식하였다.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經絡이나 經穴에 관련된 문구에서 李濟馬선생이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사실 <醫源論>의 經絡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三陰三陽病의 辨證의 차이는 그 이치가 腹背表裏인 四象體質의 病證에 있으니 반드시 經絡의 轉變되는 기존의 傷寒論식 六經病의 變化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傷寒論의 三陰三陽病에 관한 해석상의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사료되며 經絡과 四象體質과의 관련성을 언급하는 내용은 아니다. 오히려 <少陰人泛論>에서는 후학들에게 四象人의 鍼穴을 찾을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볼 때 이는 經絡學說에 대한 연구가 향후 四象醫學이 새롭게 발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이를 제시한 것으로 사료된다⁴⁾. 또한 李濟馬선생은 靈樞書중에서 太少陰陽人의 外形을 얻었고 古昔之見이 나타나 있다고 했는데 內經의 靈樞書는 經絡學說을 밝힌 대표적인 침구서인 점을 감안하면 臟腑의 氣의 多少가 經絡을 통해서 四象體質의 外형을 형성한다는 것이 四象醫學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東醫壽世保元·醫源論>⁴⁾

“三陰三陽者 辨證之同異也 其理在於腹背表裏而 不必求其經絡之變也”

<東醫壽世保元·少陰人泛論>⁴⁾

“嘗見少陰人中氣病 舌卷不語 有醫鍼合谷穴而其效如神

其他諸病之藥不能速效有之 蓋鍼穴亦有太少陰陽四象人應用之穴而必有升降緩速之妙 繫是不可不察...”

<東醫壽世保元·辨證論>⁴⁾

“靈樞書中 有太少陰陽五行人論而略得外形未得臟理 蓋太少陰陽人 早有古昔之見而 未盡精究也”

(4) 營氣의 呼吸 및 津液排泄작용은 太陰人

과 太陽人의 生理病理的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營氣는 津液과 관련이 있으며 營氣의 순환은 인체의 呼吸에 따라 이루어지는 까닭에 <四端論>의 肝과 肺는 呼吸과 氣液의 門戶라는 특성을 반영하며, 肺의 呼散之氣가 強하고 肝의 吸取之氣가 弱한 太陽人체질과 肺의 呼散之氣가 弱하고 肝의 吸取之氣가 強한 太陰人체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營氣는 呼吸에 따라 움직이는 氣이고 1呼에 3寸, 1吸에 3寸으로 1息에 6寸을 行하는데 手太陰肺經에서 시작하여 足厥陰肝經으로 가며 이를 계속 반복해서 순환하는 것이다⁷⁾. 즉 營氣는 呼吸에 따라 肺經에서 시작하여 肝經까지 肺와 肝의 對待關係를 가지며 계속해서 순환을 하며 津液을 生産分泌하는 것으로 볼 때, 肝肺는 ‘呼吸氣液之門戶’로 보는 四象醫學의 觀點과도 유사한 生理的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營氣의 呼吸 및 津液排泄작용은 太陰人과 太陽人의 生理病理的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東醫壽世保元·四端論>⁴⁾

“肺以呼肝以吸 肝肺者呼吸氣液之門戶也”

<靈樞·邪客篇>⁷⁾

“營氣者 泌其津液 注之於脈 化以爲血 以榮四末 內注五藏六腑”

<靈樞·五十營篇>⁷⁾

“人一呼脈再動 氣行三寸, 一吸脈亦再動 氣行三寸, 呼吸定息 氣行六寸”

(5) 衛氣의 汗의 배설기능은 少陰人과 少陽人의 生理病理적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衛氣는 水穀之氣의 濁氣에서 化生하여 腠理의 開合과 汗液의 排泄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少陰人은 汗을 지나치게 흘리면 亡陽證을 유발하고 少陽人은 表裏病을 막론하고 手足掌心에 汗이 나면 병이 풀리고 汗이 나지 않으면 병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여 汗의 여부는 少陰人과 少陽人의 體질감

별이나 病의 輕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⁴⁾. 특히 衛氣는 足心을 통해 腎의 膜原之內로 들어가고 인체가 활동할 때는 手三陽經上에서 掌中으로 순환하니 少陽人의 手足掌心に 땀이 나면 病이 풀린다는 이치는 衛氣가 활발히 활동한다는 뜻으로 病邪를 잘 이겨낸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衛氣의 發汗기능은 少陰人과 少陽人의 生理病理的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衛氣는 水穀之氣로서 呼吸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水穀의 힘을 받아 스스로 움직이는 氣이며, 腎脾는 ‘出納水穀之府庫’로 보는 四象醫學의 관점과도 유사한 生理的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衛氣의 땀의 배설기능은 少陰人과 少陽人의 生理病理적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東醫壽世保元·少陰人泛論>⁴⁾

“少陰人病 有二吉證 人中汗 一吉證也...”

“少陰人病 有二急證 發熱汗多 一急證也...”

<東醫壽世保元·少陽人 脾受寒 表寒病論>⁴⁾

“論曰少陽人病 無論表裏病 手足掌心

有汗則病解 手足掌心

不汗則雖全體皆汗而病不解”

<東醫壽世保元·辨證論>⁴⁾

“... 太陰人 虛汗則完實也 少陰人 虛汗則大病也 ...”

<東醫壽世保元·四端論>⁴⁾

“脾以納腎以出 腎脾者出納水穀之府庫也”

<靈樞·衛氣行篇>⁷⁾

“陽氣出於目，目脈則氣上行於頭，循項下足太陽，循背下至小指之端。其散者，別於目銳眦，下手太陽，下至手小指之端外側。其散者，別於目銳眦，下足少陽，注小指次指之間。以上循手少陽之分，下至小指次指之間。別者以上至耳前，合於頰脈，注足陽明以下行，至跗上，入五指之間。其散者，從耳下下手陽明，入大指之間，入掌中。其至於足也，入足心，出內踝，下行陰分，復合於目，故爲一周”

IV. 考 察

李濟馬선생의 四象醫學은 인간의 신체적 구조와 생리적 기능은 물론 이에 따른 심성적 情意와 정신적 욕구로서의 喜·怒·哀·樂을 가장 큰 문제로 삼았고, 나아가서는 인간의 윤리적 생활의 근원으로서 好善, 惡惡과 우주론적 원리로서의 性命을 근간으로 한 구체적 구조의 통일체로 간주했다는 데서 孔·孟과 朱子學과는 전혀 다른 독창적 新人間學인 동시에 醫學으로 성립되었다^{4,18)}.

四象醫學에서는 天機와 人事는 물론이요, 性과 命, 知와 行, 好善과 惡惡, 上昇과 下降, 輕清과 重質, 哀怒와 喜樂, 上焦와 下焦, 溫熱과 寒冷, 清氣와 濁滓 등의 四象論의 陰陽對待關係로 형성되어 있다^{4,18)}.

한의학에서 氣는 몸과 마음의 근본구성요소이며, 인체는 經氣로 구성되고 經氣의 순환과 陰陽氣運의 調和를 통해 생명을 영위하며 살아간다. 經氣는 인체내의 眞氣 혹은 正氣로 인체의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유지하고 질병의 예방치료능력을 가지며 原氣, 宗氣, 營氣, 衛氣의 네 종류가 있다¹⁾. 經氣에는 두 가지 의의가 있는데, 經絡자체의 原氣를 말하는 것으로 經絡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의 기능적인 원동력을 의미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후천적으로 받아들인 水穀之氣와 呼吸之氣에서 발생한 宗氣와 營氣, 衛氣를 말하며 營氣와 衛氣가 宗氣의 推動을 받아서 經絡을 통해 人體內外를 쉬지 않고 흐르는 현상을 가리키며²⁾, 四象體質의 형성과 가장 관련이 큰 經氣는 原氣로서, 原氣의 영향력 하에서 宗氣의 推動작용으로 인해 營氣와 衛氣가 經絡을 순환하면서 臟腑의 특질을 형성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의학은 마음인 心과 육체의 身이 들어야 하나 즉 心身一元論的 사유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心은 신체의 주인으로 창조자의

역할을 한다는 고대 동양인들의 인식관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각광을 받고있는 신경과학(Neuroscience)분야에서도 기존의 心身二元論의 사고는 오류였음을 인정하고 새롭게 心身一元論적 입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 四象醫學에서는 心이 一身을 主宰하고 太極에 해당하므로 肺脾肝腎의 形成과 調節에 관여한다는 주장과 黃帝內經에서도 心이 五臟六腑의 大主로서 정서적 감정의 변화가 心動하게 하고 心動할때에 臟腑가 動搖한다는 내용은 心의 喜怒哀樂의 감정기운이 肺脾肝腎의 大小를 형성한다는 李濟馬선생의 四象體質형성관점과 서로 유사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經絡養胎說에서도 태아가 산모의 체내에서 성장하면서 經絡과 臟腑가 형성되는데 十二經脈의 형성과정에서 心經은 君主의 官으로 모든 養胎에 관여하기 때문에 10개월 동안의 妊娠月數중에서 心經은 배속되지 않았다¹⁵⁾. 또한 心經의 五輸穴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內經에서는 心이 五臟六腑의 大主로서 邪氣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心經에 五輸穴이 없다고 설명했으며⁷⁾, 許浚선생의 東醫寶鑑에서도 心이 神을 간직하고 一身의 君主가 되어서 七情을 統攝하고 萬機를 조절한다고 하였다¹⁷⁾. 이와 같이 선인들은 心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과 분야에서 心을 臟腑 및 經絡형성과정에서 조절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피조물로 여기지 않았는데 이는 李濟馬선생의 喜怒哀樂의 감정을 가진 心이 一身의 主宰로서 肺脾肝腎의 大小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생각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李濟馬선생은 經絡學說을 후학들이 더욱 연구할 분야로 인식했는데, 東醫壽世保元의 <少陰人泛論>⁴⁾에서 후학들에게 四象人의 鍼穴이 반드시 있을 것이므로 깊이 있게 연구하고 찾을 것을 독려하는 것으로 볼 때 이는 經絡과 四象體質鍼에 관한 연구가 향후 四象醫學이

새롭게 발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이를 제시한 것으로 사료된다.

黃帝內經의 經絡學說은 經氣를 중심으로 氣가 존재한다는 인식 하에 성립한 學說로 모든 醫書에서 비판 없이 인정하는 한의학의 핵심적 學說이며 臟象學說의 논리적 근거가 된다.

經氣는 邪氣에 대항하는 인체의 생명력인 正氣라고 하는데 原氣, 宗氣, 營氣, 衛氣로 나뉜다⁹⁾. 이중 原氣는 先天之氣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일생동안 유지되는 生理的, 病理的 경향성을 가진 氣로 다시 자손에게 물려주는 氣다. 인체가 성장하는 동안 몸의 발달을 주관하며 부모의 체형과 성격 등의 유전성을 나타내는 氣라고 볼 수 있으며 체질과 관련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原氣는 經絡이 기능하고 활동하는 기초가 되는 先天之氣로 經絡과 臟腑의 발생과정에 밀접한 작용을 하며 腎精에 저장된다. 이미 생명을 부여받은 인체에서는 腎精에 저장되어 있다가 부모의 父精과 母血의 결합으로 兩精이 만나면 神이 생기며, 이 神은 血과 氣 및 營氣와 衛氣가 서로 和通하면서 五臟이 생기고 神氣가 心에 간직되어야 魂魄이 갖추어지면서 사람이 된다고 하였다⁷⁾. 따라서 原氣는 經絡과 臟腑의 발생과정에 밀접한 작용을 하는 先天의 氣이고 宗氣는 上部에 集積되어 있는 後天의 氣로서 이들 상호간에는 밀접한 연계를 갖고 後天의 氣인 營氣와 衛氣를 經絡으로 움직여서 이들 經氣의 작용으로 經絡과 臟腑 및 筋骨氣血의 특질을 결정할 수 있다.

宗氣는 胸中之氣로 營氣와 衛氣를 推動하는 氣인데 營氣는 呼吸에 따라 움직이는 氣이고, 衛氣는 水穀之氣로서 呼吸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水穀의 힘을 받아 스스로 움직이는 氣이다⁹⁾.

營氣는 宗氣에 따라 呼吸에 의해서 行하는데 1呼에 3寸, 1吸에 3寸으로 1息에 6寸을 行하는데 手太陰肺經에서 시작하여 足厥陰肝經

으로 가며 이를 계속 반복해서 순환하는 것이다⁷⁾. 즉 肺經에서 시작하여 肝經까지 肺와 肝의 對待關係를 가지며 계속해서 순환을 하는 것이다.

衛氣도 宗氣에 영향을 받아서 行하는데 水穀의 陽氣속성을 가진 濁氣으로써 慄疾滑利하여 經脈內로 들어가지 않고 目開하면 手足三陽經上을 行하며 目閉하면 五臟의 陰分으로 行하는데 足少陰이 注하는 腎에서 시작하여 脾까지 순환하며 營氣와의 연결은 絡脈에서 이루어진다⁷⁾. 즉 腎에서 시작하여 脾까지 對待關係를 가지며 계속해서 순환을 하는 것이다. 衛氣순환의 원동력은 宗氣에서 받고 循行은 自力으로 이루어지는데 目開하면 脾氣가 커져 衛氣가 膀胱經의 肌表나 皮膚分肉之間으로 나오며, 目閉하면 手足三陽經의 肌表·皮膚分肉之間을 行하던 衛氣가 腎의 膜原으로 들어오므로 腎氣가 커지고 상대적으로 脾氣는 작아지는 것이다. 衛氣가 手足三陽經上의 肌表나 皮膚分肉之間을 行할 때는 臟腑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五臟의 陰分으로 行할 때는 臟腑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原氣의 영향력 아래서 宗氣의 推動作用으로 인해 對待關係를 가지는 臟器의 상태가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난다. 하나는 宗氣가 營氣를 推動하여 手太陰肺經에서 足厥陰肝經으로 순환하는 肺와 肝의 對待關係를 가지며 다른 하나는 宗氣가 衛氣를 推動하여 생기는 腎의 膜原之內에서 脾의 膜原之內로 순환하는 腎과 脾의 對待關係를 가진다.

또한 營氣는 津液과 관련이 있으며 呼吸에 따라 이동하는 까닭에 <四端論>에 肝과 肺는 呼吸氣液의 門戶라는 특성을 반영하며 肺의 呼散之氣가 강한 太陽人체질과 肝의 吸取之氣가 강한 太陰人체질을 만드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營氣의 呼吸 및 津液排泄작용은 太陰人과 太陽人의 生理病理의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衛氣는 水穀之氣의 濁氣에서 化生하여 腠理의 開合과 汗液의 排泄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少陰人은 땀을 지나치게 흘리면 亡陽證을 유발하고 少陽人은 表裏病을 막론하고 手足掌心に 땀이 나면 병이 풀리고 땀이 나지 않으면 병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여 땀의 여부는 少陰人과 少陽人의 체질감별이나 病의 輕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특히 衛氣는 足心을 통해 腎의 膜原之內로 들어가고 낮에 활동시에는 手三陽經上에서 掌中으로 순환하니 少陽人의 手足掌心に 땀이 나면 病이 풀린다는 이치는 衛氣가 활발히 활동한다는 뜻으로 病邪를 잘 이겨낸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衛氣가 주관하는 땀의 배설기능은 少陰人과 少陽人의 生理病理의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氣의 성립이론인 經氣論이 四象醫學의 臟腑大小關係 즉 臟腑之氣의 強弱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心은 五臟六腑의 大主로서 精神이 머무르는 곳으로 父精과 母血의 兩精이 相搏하면 神이 생기며 神은 心에 간직되어 七情을 統攝하는데 喜怒哀樂의 감정의 氣運이 心을 動하면 五臟六腑가 다 搖動하여 臟腑의 大小를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氣血을 調和롭게 하는 營氣와 衛氣가 순환을 하게되면 經絡과 臟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心의 감정적 변화인 喜怒哀樂이 생기면 心이 動하고 心動하면 五臟六腑가 다 動搖하여 宗脈이 感하면 先天之氣인 原氣의 영향력아래서 宗氣의 強弱作用으로 營氣를 推動하여 선천적으로 받은 氣의 量과 偏差에 따라 肺氣가 多氣하고 肝氣가 少氣한 肺와 肝이 對待關係를 가진 太陽人체질과 肺가 少氣하고 肝氣가 多氣한 太陰人체질이 형성되고, 宗氣의 強弱作用으로 衛氣를 推動하여 腎氣가 多氣하고 脾氣가 少氣한 腎과

脾가 對待關係를 가진 少陰人체질과 腎氣가 少氣하고 脾氣가 多氣한 少陽人체질이 형성된다는 經氣論의 假說을 세울 수 있다.

결론적으로 四象人의 경우에 原氣의 영향력 하에 宗氣가 營氣와 衛氣에 강한 推动作用을 일으키면 해당 經絡과 臟腑는 多氣한 상태가 되고 그 對待關係가 되는 해당 經絡과 臟腑는 少氣한 상태가 되며, 宗氣가 營氣와 衛氣에 弱한 推动作用을 일으키면 해당 經絡과 臟腑는 少氣한 상태가 되고 그 對待關係가 되는 해당 經絡과 臟腑는 多氣한 상태가 되어 經氣가 순행되는데 전체적인 氣의 總量을 유지하면서 氣의 偏差를 가지고 순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四象醫學이 李濟馬선생의 철학적 사유 근거를 찾는 연구방향에서 이제는 人體를 대상으로 한 한의학적 접근과 연구를 통해서 한의학적 체계를 갖추고 四象醫學의 世界化를 위한 여러 방면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經氣論에 근거한 四象體質 형성에 관한 연구는 經絡學說을 바탕으로 한 기존 한의학적 관점에서 四象醫學을 연구하는 論文으로 향후 四象體質의 經穴과 經絡에 관한 연구 및 四象體質鍼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는데 큰 意義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 結 論

黃帝內經과 東醫壽世保元을 중심으로 文獻考察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原氣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先天之氣이고 宗氣, 營氣, 衛氣는 人體의 呼吸作用과 水

穀의 攝取로 생겨난 後天之氣이다.

2. 原氣의 영향력아래서 宗氣의 強弱推动作用에 의해 營氣와 衛氣가 經絡을 순행한다.

3. 營氣는 宗氣의 推動을 받아 선천적으로 받은 氣의 量에 따라 肺大와 肝小, 肺小와 肝大의 對待關係를 형성한다.

4. 衛氣는 宗氣의 推動을 받아 선천적으로 받은 氣의 量에 따라 脾大와 腎小, 腎大와 脾小의 對待關係를 형성한다.

5. 經絡養胎說과 四象醫學의 心은 七情을 統攝하는 君主之官으로 經絡과 臟腑의 형성에 관여한다.

6. 太陽人과 太陰人은 營氣의 영향을 받는 體質로 사료된다.

7. 少陽人과 少陰人은 衛氣의 영향을 받는 體質로 사료된다.

이에 저자는 黃帝內經의 經氣論을 중심으로 四象體質 성립관계를 문헌을 통하여 알아 본 결과 四象醫學의 성립이 經絡學說을 토대로 한 한의학의 특질을 잘 함축 표현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文獻考察과 四象體質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I. 參考文獻

1. 金完熙外, 東醫生理學, 서울 : 慶熙大學校出版局, 1993, p.150.
2.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第11期 共編, 鍼灸經緯解釋, 서울 : 醫聖堂, 1999, p.70.
3.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 집문당, 1997, pp.39, 66, 443.
4. 洪淳用, 李乙浩, 四象醫學原論, 서울 : 행림출판, 1973, pp.16-18, 20, 32-33, 36-37, 39, 45, 47-48, 92, 95, 106, 113, 138, 144, 208, 217, 251.
5. 全國韓醫科大學 鍼灸經穴學教室, 鍼灸學(上), 서울 : 集文堂, 1988, pp.37, 42, 43, 60, 62-64.
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p.65, 104, 116.
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p.13, 68, 111, 119, 120, 159, 213, 241, 298-299, 302-303, 317, 324, 333.
8. 凌耀星, 難經校注,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59, 115.
9. 張介賓, 類經(上), 서울 : 大星文化社, 1989, pp.192, 194.
10. 大韓東醫生理學會, 東醫生理學, 서울 : 慶熙大學校出版局, 1993, pp.86-87, 167.
11. 周學海, 讀醫隨筆, 江蘇省 :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34.
12. 張介賓, 景岳全書(上), 서울 : 大星文化社. 1988, p.238.
13. 裴秉哲, 今釋黃帝內經<素問>, 서울 : 成輔社, 1994, p.256.
14. 裴秉哲, 今釋黃帝內經<靈樞>, 서울 : 成輔社, 1995, pp.486-487, 603.
15. 孫思邈, 千金要方, 서울 : 大星文化社, 1984, pp.21-24, 233, 236.
16. 鄭遇悅, 醫學史, 익산 : 서울공판사, 1987, p.41.
17. 許浚, 東醫寶鑑(內經篇), 서울 : 大星文化社, 1985, p.163.
18. 洪淳用, 四象診療保元, 서울 : 書苑堂, 1997, p.78.
19. 徐靈胎, 徐靈胎醫書全集, 台北 : 洲出版社, 1982, p.55.
20.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素問, 서울 : 여강출판사, 1995, pp.99-100.
21.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靈樞, 서울 : 여강출판사, 2000, p.215.